'퇴직위기'에 처한 퇴직연금… 1.01% 민망한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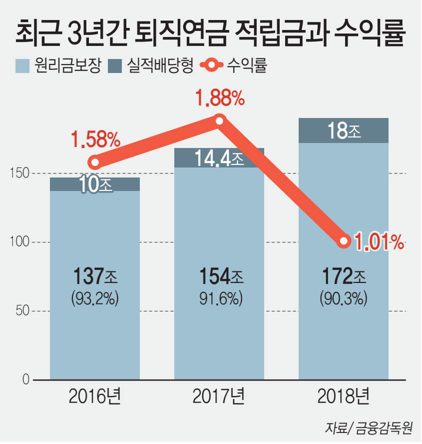
〈190조 규모〉 〈2018년〉

금감원, 적립금 규모 12.8%⬆
손보 수익률 1.72% 가장높아
생보 1.40%>은행0.97% 순서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시 부진에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익률이 1.01%로 주저앉았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90조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다. 특히 세제혜택과 가입대상 확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퇴직연금의 대부분인 90.3%가 원리금보장상품으로 운용됐고, 9.7%만이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됐다.



덩치는 커졌지만 수익률은 부진했다. 지난해 연간 수익률은 1.01%로 2016년 1.58%, 2017년 1.88%보다도 낮다. 같은 기간 은행 정기예금 금리 1.9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확정급여형(DB)에 비해 실적배당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와 개인형IRP의 수익률 하락폭이 더 컸다. 각각 0.44%, -0.39%다.

증시 하락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부진했다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만 놓고 봐도 1.56%로 은행 정기예금 금리에 못 미친다.

금융권역별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의 수익률이 1.72%로 가장 높았으며 ▲근로복지공단 1.58% ▲생보 1.40% ▲은행 0.97% ▲금투 0.39% 등의 순이다.

최근 5년, 10년 간 연환산 수익률(총비용 차감 후)은 각각 1.88%, 3.22%다.

장기적으로는 실적배당형의 성과가 더 좋았다.

실적배당형의 최근 5년, 10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1.48%, 4.80%로 원리금보장형 각각의 수익률인 1.94%, 3.07%를 앞선다.

낮은 수익률로 연금가입자가 체감하는 퇴직연금 수수료 수준은 높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총비용부담률은 0.47%로 전년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퇴직연금은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갔다.

지난해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에서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은 2.1%에 불과하며, 97.9%가 일시금 수령을 선택했다.

퇴직급여 수령액 기준으로는 전체 5조9002억원 중에서 21.4%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일시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597만원으로 연금수령 계좌 평균 수령액(2억 575만원)의 7.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적립금이 적은 소액 계좌의 경우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시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리금보장형 위주의 자산운용과 저금리 기조에 따라 수익률이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와 수수료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연금가입자 편의 증진을 위해 정보공시 강화 등 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독립운동가 그라피티 벽 따라 걷는 외국인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나흘 앞둔 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열린마당 의정부터 발굴 현장 외벽을 따라 그라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LEODAV, 본명 최성욱)가 그린 독립운동가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안전 사각지대' 구직자에 월 50만원

'한국형 실업부조' 밑그림
잠재적 수혜자 53.6만명

정부가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나왔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못 받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구직자에게 국가가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해 생계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저소득층 청년이 주요 수혜자가 될 전망이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한국형 실업부조 법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53만6000명으로 추산됐다.

보고서는 2016년 기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토대로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지급 기준을 적용해 잠재적 수혜자를 추산했다.

한국형 실업부조 지원 대상은 '저소득 가구에 속하면서 노동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로 정의됐다.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려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재산 규모도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 연령대는 18~64세로, 노동 능력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제외된다. 노동 의사가 있는지는 연간 구직활동 경험 여부로 판별한다.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지 6개월이 안 지난 사람도 제외된다. 아르바이트생과 같이 월급 50만원 미만의 '불완전 취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해 추려낸 한국형 실업부조의 잠재적 수혜자는 남성은 32만9000명, 여성은 20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15~29세가 11만명, 30~54세가 29만4000명, 55~64세가 13만2000명이었다. 노동 능력을 가진 저소득자 가운데 잠재적 수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29세가 40.1%로, 30~54세(24.1%), 55~64세(17.5%)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보험의 안전망 밖에 놓인 사람은 청년뿐 아니라 자영업자, 경력 단절 여성,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다양하다. 이들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지원하는 데 한국형 실업부조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내 실업자 가운데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37.3%에 그쳐 한국보다 늦게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 회원국 평균(69.7%)에 크게 못 미친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

한국경제 곳곳 경고등

1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세계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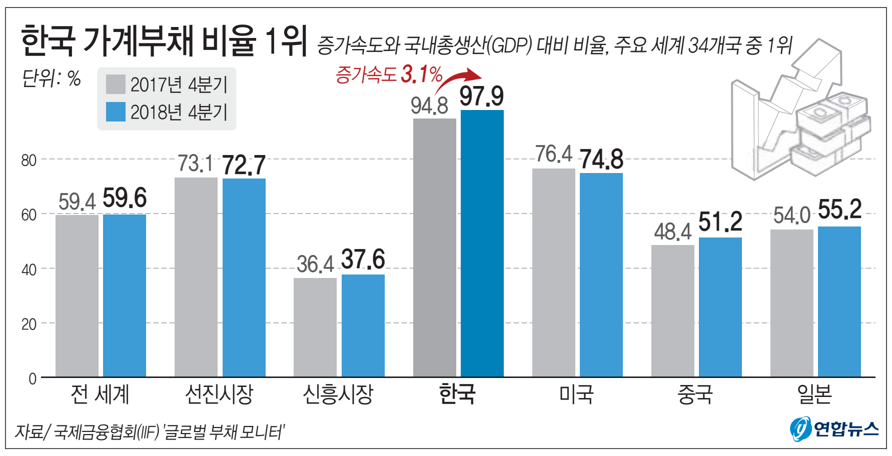
국제금융협회, 글로벌 부채 모니터
글로벌 가계부채 GDP비율 59.6%
韓은 97.9%, 1년새 3.1%p 급상승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완화됐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7일 국제금융협회(IIF)가 발표한 '글로벌 부채 모니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한국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은 97.9%였다. 이는 IIF가 국가별 수치를 제시한 34개 선진·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글로벌 가계부채의 평균 GDP 대비 비율은 59.6%다.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뿐 아니라 비율의 상승 속도도 가장 빨랐다. 지난해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전년 동기(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같은 기간 글로벌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0.2%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반대로 미국과 유로존(19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각각 1.6%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은 가계부채뿐 아니라 기업부채도 빠른 속도로 늘었다. 한국 비금융 기업의 부채는 지난해 4분기 기준 GDP 대비 102.2%에 달해 1년 만에 3.9%포인트 상승하면서 100%를 넘어섰다. GDP 비율의 상승 속도는 34개국 중 4위였다.

지난해 말 글로벌 부채는 243조 2000억 달러(약 22경7642조원)로, 1년 전보다 3조3000억 달러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7년 전년보다 21조 달러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가 크게 느려졌다.

IIF는 "작년 전 세계 부채 증가속도의 급격한 둔화는 주로 유럽과 중국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희주 기자 hj89@

2 "대내외 수요 위축… 韓경기 점차 부진"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동향'
소비·수출·투자·생산 등 우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국 경기가 부진해지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우려의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KDI는 7일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대내외 수요가 위축되면서 경기가 점차 부진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는 작년 10월까지 경기가 개선 추세라고 판단했지만, 11월 '둔화'라는 단어를 꺼내 들며 개선 추세가 종료됐다고 봤다.

KDI는 이후 5개월 동안 둔화 판단을 이어갔지만, 이달 '부진'이라는 단어를 총평에서 처음 사용하며 진단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둔화보다 더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의미에서 부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면서 "다만 이는 전망이 아닌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한 평가로 '급락'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KDI는 소비와 수출, 투자, 생산 등 주요 경제지표와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KDI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도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비를 의미하는 소매판매액 증가율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2월 -2.0%를 기록했고, 설 명절 이동 효과를 배제한 1~2월 평균으로는 1.1%를 나타냈다.

작년 같은 기간 평균인 4.3%와 작년 4분기 3.0%보다 부진한 수치다.

KDI는 이와 관련해 "소매판매액은 설 명절 이동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고, 1~2월 평균으로도 증가 폭이 축소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KDI는 "설비투자 감소세가 심화하는 가운데 건설투자 부진도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2월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부진해 26.9% 감소했다. 1월 -17.0%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3월 자본재수입액은 -24.3%를 기록했다. 전월(-35.9%)보다는 감소 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면서 향후 설비투자 개선 흐름이 제한적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KDI는 분석했다.

2월 건설기성(불변) 역시 건축과 토목 부문 부진이 지속하며 10.6% 감소했다. 건설수주(경상) 역시 26.6% 줄어들었다. /연합뉴스